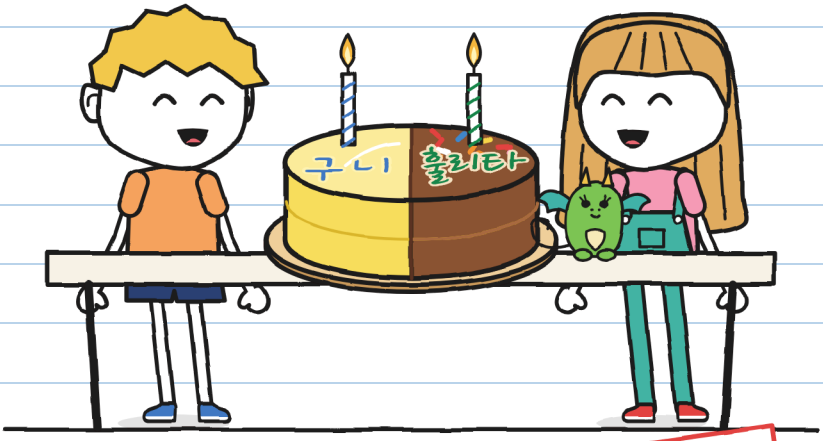
불가능 배달 · 5

케이크 하나, 우리 둘

LinguAula



(구니의 공책)

사이즈 S
초급 · 가+

불가능 배달 · 5
케이크 하나, 우리 둘

글과 그림: LinguAula

사이즈 S · 초급 · 7+

한국어판: LinguAula

초판: 2026

© 2026 LinguAula · info@linguau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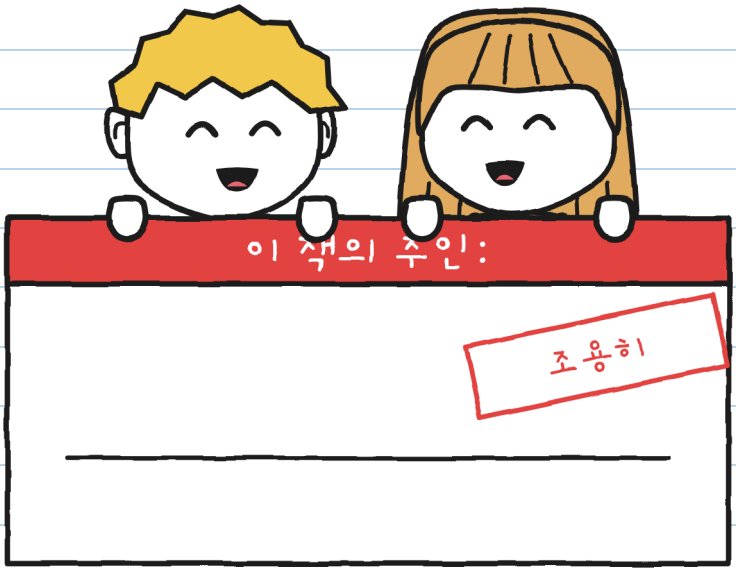
교실에서도 집에서도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다섯 번째 책. 앞선 책: '이 택배는 문다', '천둥 치기 전엔 열지 마시오', '반송해 주세요', '여기선 안 돼, 부스러기!'

LinguAula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이 책에서 다친 케이크는 없다. 반으로 잘리긴 했다. —J.



조용히. 열기 전까지는. —J.

이걸 주웠다면 돌려줘. 서프라이즈 없이, 주인에게.

이야기 속에서만

이 도장은 이야기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표시해. 진짜 용은 없어.
택배는 날아서 돌아오지 않아. 진짜 파티는 36쪽을 봐. —J.

등장인물



구니. 토요일마다배달하는 아이. 이 공책의 주인이다. 조용한 오후를 좋아한다.



훌리타. 초록색으로 쓰고 J. 라고 서명한다. 음악이 있는 파티를 좋아한다. 그리고 서프라이즈도.



토뇨. 번개배송 배달원. 10분 안에 못 오면 공짜. 속임수는 배달하지 않는다.



마라. 불가능 배달의 주인. 마녀 모자를 쓴다.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



엘리아. 동네빵집 주인. 오븐 하나와 손 두 개가 있다.



부스러기. 아기 용. 베라 아줌마와 산다. 초를 좋아한다. 너무너무.



5번 택배. 겉모습은 다른 택배와 똑같다. 라벨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들어가는 곳에 설치할 것.



R. 아무도 배달하지 못하는 택배를 보낸다. 아무도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배달 공책 5
주인 : 구니

조용히.



공책 4는 부스러기가 내 운동화에서 잠든 채로 끝났다.
이번 공책은 분홍색이다. 케이크 위의 설탕 같은
색이다. 가게 도장도 찍혀 있다.

첫 쪽에는 단어를 하나 썼다. 훌리타는 보여 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냥 거꾸로 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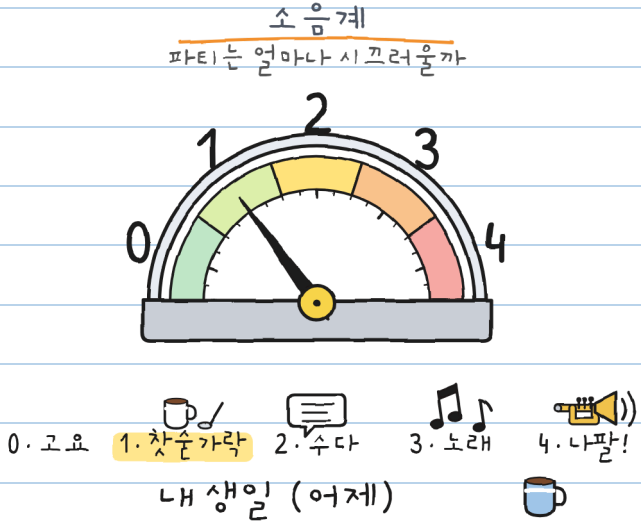
조용히라고 쓰는 사람은 앞일을 모른다. —J.

제1장

초대장 두 장

어제, 16일 금요일은 내 생일이었다. 집에서 우리 엄마와 보냈다. 레몬 케이크, 찻잔 두 개. 노래한 사람은 없었다. 완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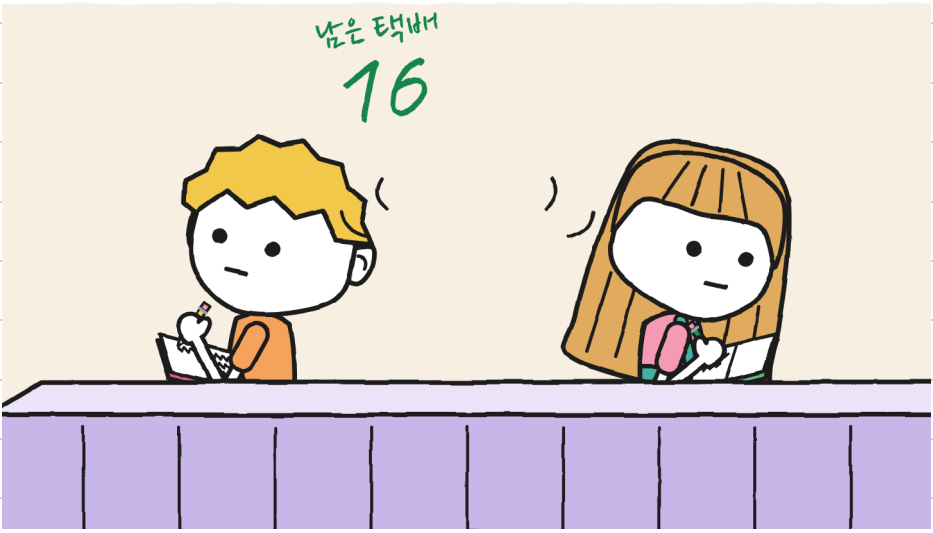
제대로 기록하려고 기계를 하나 만들었다.



소음계가 0이면 생일이 아니야. 간식이지.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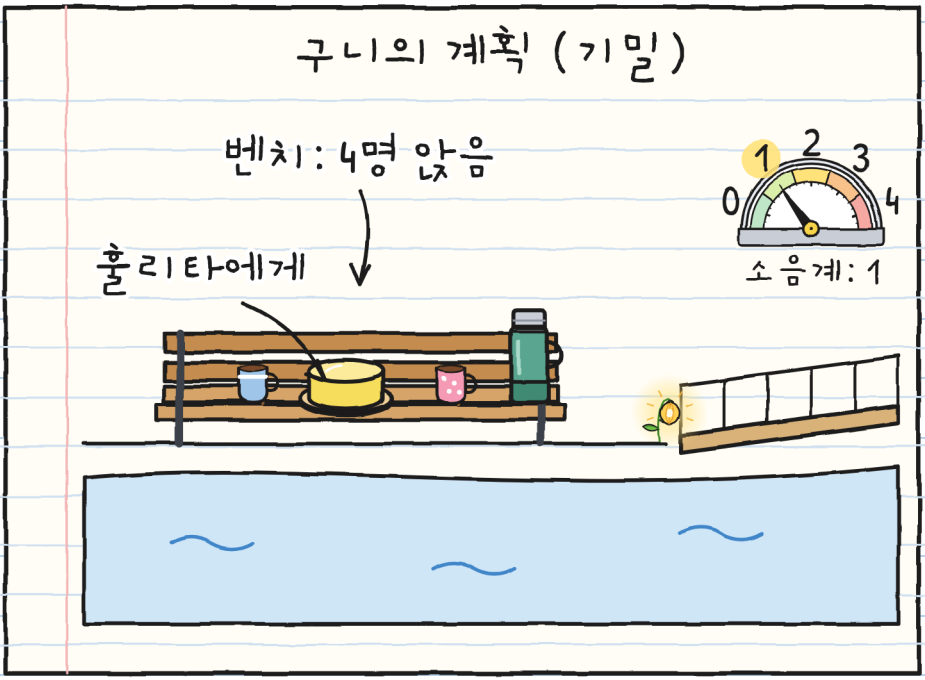
"21일 수요일이 내 생일이야." 훌리타가 말했다. "우리 같이 하기로 했잖아."
"21일 지나고." 내가 말했다.
"토요일 24일. 5시에."
"5시에."

우리 둘 다 적어 두었다. 더는 말하지 않았다. 나는 파티가 어떨지 알고 있었다. 훌리타도 알고 있었다.



내가 아는 건 이거였다. 훌리타에게는 조용한 오후가 필요하다. 훌리타는 늘 뛰고, 시간을 재고, 질문한다. 소음 없는 간식이 훌리타에게 좋을 것이다. 널다리 벤치에서.

서프라이즈였다. 훌리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오기만 하면 된다.



훌리타의 계획은 그다음 금요일에야 알았다. 나중에 훌리타가 이 쪽을 내 공책에 썼다.

내가 아는 건 이거였어. 구니에게는 진짜 파티가 필요해. 음악이 있는 파티. 본인은 몰라. 물어보면 싫다고 하겠지. 그래서 안 물어봐. —J.



한낮에 토쇼가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다. 자전거를 문 앞에 세우고 자기 상자에 앉았다. 나는 파란 봉투 네 장을 건넸다.

"한 장은 네 거야. 나머지는 마라 아줌마, 베라 아줌마, 플로라 아줌마한테 줘. 훌리타한테 줄 서프라이즈야. 말하지 마."

"서프라이즈는 지킬게." 토쇼가 말했다.

토쇼는 봉투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가방에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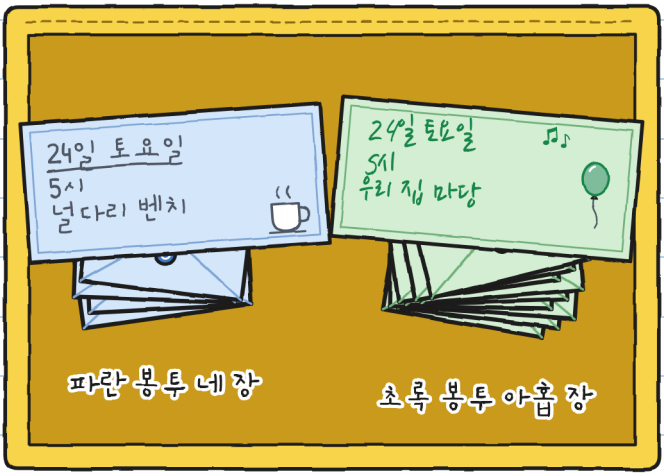
나는 점심을 먹으러 갔다. 훌리타는 토뇨에게 초록 봉투 아홉 장을 주었다. 토뇨가 금요일에 나한테 말해 주었다.

"한 장은 네 거야. 나머지는 마라 아줌마, 베라 아줌마, 플로라 아줌마, 엘리아 아줌마, 안토니오 어르신, 소에, 브루노, 신발 가게 아줌마한테 줘. 구니한테 줄 서프라이즈야. 말하지 마."

"서프라이즈는 지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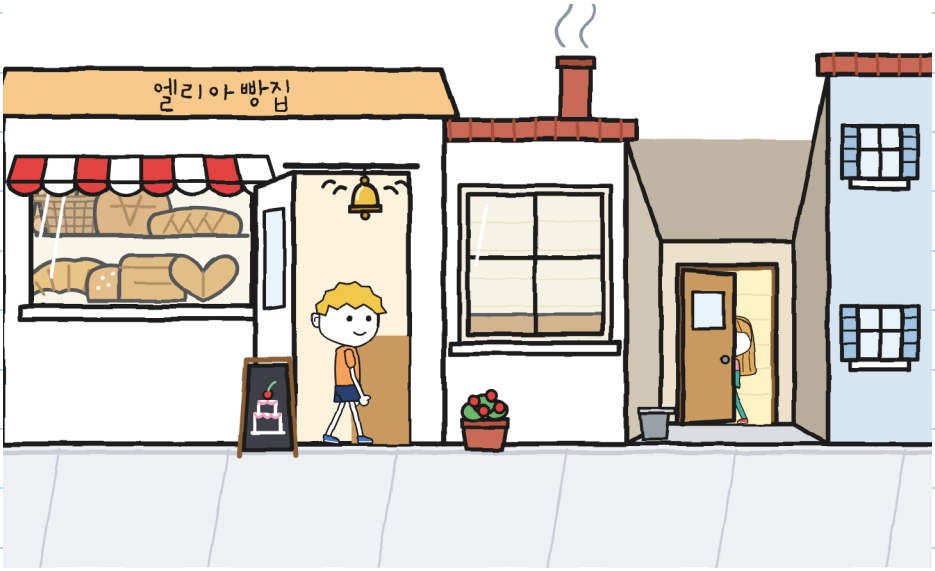
이번에는 토뇨가 파란 봉투와 초록 봉투를 열어 보았다. 똑같이 쓰여 있었다: 24일 토요일, 5시.

토뇨가 나한테 들려준 대로



오후에는 엘리아 아줌마네 빵집에 케이크를 주문하러 갔다. 들어가자 부엌 문이 닫혔다. 초록색 멜빵바지가 보인 것 같았다.

다른 멜빵바지겠거니 했다.



내 거였어. 엘리아 아줌마가 나를 부엌으로 내보냈지.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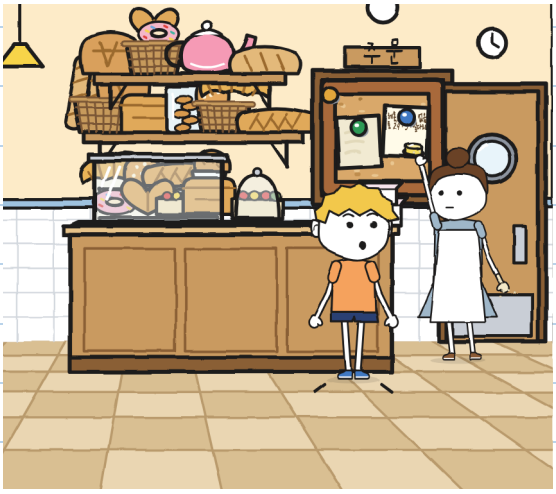
"작은 레몬 케이크 하나 주세요." 내가 엘리아 아줌마에게 말했다. "위에는 아무것도 올리지 마시고요. 24일 토요일 5시에, 널다리 벤치로요. 훌리타한테 줄 서프라이즈예요."

엘리아 아줌마는 그걸 종이에 적었다. 그러고는 주문판을 쳐다보았다. 거기에는 뒤집힌 종이가 한 장 있었다.

"24일 토요일 5시? 그 시간엔 벌써 다른 케이크가 있단다. 다른 곳으로 가는 거야."

"누구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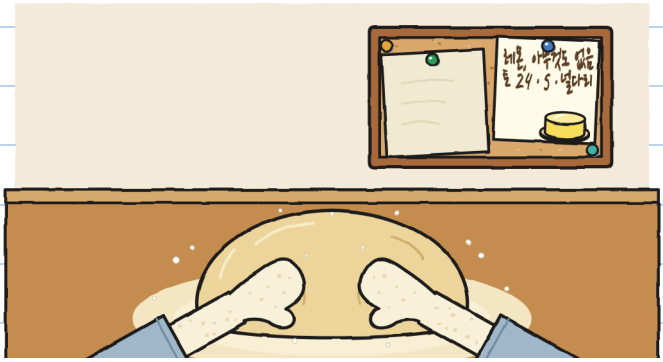
"비밀이란다. 네 것처럼."



다른 사람 거겠거니 했다. 10월에는 생일인 사람이 많으니까.

"비밀은 지켜 줄게." 엘리아 아줌마가 말했다. "다른 손님의 비밀도. 그런데 나는 오븐이 하나고 손이 두 개야. 토요일 5시에는 두 손이 한 곳으로만 갈 수 있어."
"다른 케이크는요?"
"그건 주문한 너희가 정하렴. 나는 케이크를 만들어. 파티는 안 만들어."

'엘리아: 오븐 하나, 손 둘, 한 곳'이라고 적었다.



엘리아 아줌마는 다음 날 나한테 말해 줬어. 나도 그 너희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 —J.

오후에 가게에서 토뇨가 가방을 계산대에 쏟았다.
봉투를 색깔별로 나눴다. 초록은 한쪽, 파랑은 다른 쪽.
다시 세었다.
"구니, 훌리타랑 파티 얘기했어?"
"아니. 서프라이즈잖아."
"그렇구나." 토뇨가 말했다. "번개배송에서는 주소가
두 개인 택배는 가게 밖으로 못 나가."
"무슨 주소 두 개?"
"그건 말해 줄 수 없어. 부탁받았거든."



토뇨는 색깔마다 초대장을 한 장씩 주머니에 넣었다.
"이 두 장은 내 거야." 토뇨가 말했다. "나머지는
월요일에 돌릴게."

마라아줌마는 5번 택배 상자를 높은 선반에서 내렸다.
다른 상자와 똑같았다. 안에서 나무로 된 무언가가
삐걱 소리를 냈다.
"엘리아가 5시에 와." 마라아줌마가 말했다. "드디어."



한 주머니에 봉투 두 장. 서로 상대방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봉투 여기야. —J.

한 이야기, 여섯 가지 사이즈

사이즈는 여섯 가지다. 3세부터 16세까지, 언어는 20개가 넘는다. XXS, XS, S, M, L은 쪽수와 그림이 같다. XL은 소설이다. 이야기하는 방식만 다르다.

사이즈 XXS · PRE-A1
펼친 공책은 어디 있지?

사이즈 XS · A1
첫 쪽에 단어를 하나 썼다. 홀리타가 거꾸로 읽었다.

사이즈 S · A2
첫 쪽에는 단어를 하나 썼다. 홀리타는 보여 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냥 거꾸로 읽었다.

사이즈 M · B1
첫 쪽에는 단어를 딱 하나 썼다. 홀리타는 그 단어를 알려 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냥 거꾸로 읽었다.

사이즈 L · B2
첫 쪽에는 단어를 딱 하나 썼다. 홀리타는 그 단어를 알려 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냥 거꾸로 읽었다.

사이즈 XL · B2-C1
삽화 소설 · 13+
CEFR 수준은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각자 자기 사이즈로. 케이크는 같아. —J.

가족과 교사를 위한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